

문화

행복한 책임기

김훈의 '남한산성' <학교재>

치욕의 역사는 슬프다. 자연재해나 외세의 도전을 받은 역사가 누대에 걸쳐 찬란한 문명을 꽃피운다 해도 치욕의 시간은 돌이킬 수 없다. 이와 같은 아픈 역사는 주위에 강대국을 끼고 있는 지정학적 속명에서 기인한다. 우리 민족이 삼국시대부터 이 치욕의 역사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백제는 당나라의 침입을 받았고 고려는 몽고의 속국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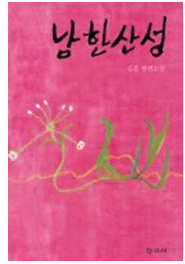
아놀드 조셉 토인비는 '도전과 응전'이란 사회의 문명과 역사를 발전시키는 바탕이 된다고 했다. 잉카나 마야의 문명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인도나 중국 등의 문명은 여전히 견재하고 더욱 찬란하게 발전하고 있다.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에드워드 카는 '역사는 예언할 수 없다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떠나온 도성은 지적이 되 면 곳이나 다름없고 겨울이 깊어갈수록 굽주려가는 산성이 바로 최전방이다.

이곳에서 파란한 조정이 하는 일은 화전을 놓고 언쟁하며 온조의 사당에 제사를 바치고 청의 칸이 망월봉에서 내려다보는 가운데 명을 향한 망월령을 행하는 것러고작이다. 그러나 추위에 얼어 죽는 군사, 산성의 출구를 열기 위해 집결하다 전멸하는 관군, 귀순을 권하는 칸의 글은 출성이 수성이며 또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실 그것이 세상으로 나가는



광주시립극단 '인적 구성' 첫단추 잘 끼워야

감독 등 출연직 3명 정원 4명 지원, 책임자 선정 우려

25년만에 재 창단... 예산 7억원, 빛고을문화관에 등지

지난 1982년 창단된 광주시립극단이 지금까지 건재했다면 올해 서른살 생일 잔치를 근사하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 최초의 극단이었던 광주시립극단은 운영 실책, 재정 빈약, 단원 불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얽히면서 지난 1987년 해체되고 말았다.

지난해 광주시립극단 창단 건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시립극단이 25년만에 부활하게 됐다. 광주문화재단은 관련 조례 개정이 끝남에 따라 예술감독과 상임단원 모집에 나서는 등 창단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무대감독·연출 1명씩 지원=이번에 재창단되는 시립극단의 가장 큰 특징은 교향악단 등 타 시립예술단체와 달리 무대에 직접 서는 상임단원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술감독, 기획 등 작품을 제작하고 사무를 담당하는 상임단원만 채용하며 배우들은 개별 작품별로 오디션을 거쳐 선발하게 된다.

처음 광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극단 구성안은 극단장, 안무, 음악, 작가, 기획, 홍보 등 6명이었고 논의 과정을 거쳐 예술감독, 연출, 무대감독, 단무장, 기획, 홍보로 인적 구성을 정했다.

최근 원서마감을 끝낸 신입 예술감독(2년 임기)과 단원 모집 지원율은 의외로 저조했다. 지난 2일 마감된 예술감독은 단 2명만이 지원했다. 광주와 서울에서 각각 1명씩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전경위원회를 열어 거쳐 후보

자를 추천하면 시장이 위촉하게 된다.

3일 마감된 일반 단원의 경우는 5명 정원에 모두 13명이 지원했다. 무대감독 1명, 연출 1명, 단무장 3명, 기획 3명, 홍보 5명 등이며 모두 지역 인물들이었다. 심사는 9일 진행되며 신입 예술감독을 포함, 5명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간다.

응모자가 의외로 적어 책임자를 뽑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창단에 급급해 무조건 사람을 뽑는 무리수를 두기 보다는 책임자가 없을 경우 당분간 각 분야 담당자를 비상임으로 활용하면서 장기적으로 인적 구성을 마무리 지어야한다는 의견이다.

일부에서는 인적 구성이 아쉽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타 단체에 비해 공연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상임단원이 없는 단체에서 비출연직이 단무장, 기획, 홍보 등 3명이나 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시립예술단체의 경우 상임단원 110명으로 구성된 교향악단이나 76명으로 구성된 국악관현악단, 77명인 합창단 모두 단무장 1명과 기획·홍보 1명으로 운영중이다.

홍보·기획 파트를 줄이는 대신 지도 단원을 두는 방안을 제안하는 이들도 있다. 서울시극단의 경우 마임 등 지도단원 2명이 있으며 대구 역시 트레이너를 고용하고 있다. 인천과 경기도 역시 훈련장과 지도위원을 각각 두고 있다.



광주시는 25년만에 재창단되는 광주시립극단의 예술감독과 단원들을 모집하는 등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2012 광주연극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극단 까치놀의 '꿈꾸는 해바라기'.

트레이너의 경우 극단 배우들 뿐 아니라 열악한 여건에 처한 지역 연극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지역 연극계 기반을 탄탄히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시민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전문가 자문 활성화' = 지난해 광주시의회에서 통과된 올 극단 예산은 모두 7억1000만원(4월~12월)이다. 상임단원 20명인 부산은 9억8000만원, 대구(15명)는 7억1000만원이며 서울시극단은 9억3000만원을 쓰고 있다.

광주시립극단은 광주문화재단에 자리를 잡은 타 단체와 달리 광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빛고을문화재단 별관에 등지를 한다. 이곳에 자리잡았던 광주시립극관현악단은 광주문화재단

내 옛 광주시립미술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시립극단 재창단 당시 시측이 광주문화재단이 극단을 운영하는 안을 제출했다. 회의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었다. 그런 탓에 극단이 문화재단 건물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결국 문화재단이 운영하며 민영화시키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측의 정확한 답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극인 A씨는 "첫단추를 잘 끼우는 게 중요하다. 때문에 인적 구성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견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밝히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활성화해 예술감독이 건 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나는 살고자 한다

했다. 이 예언할 수 없는 역사는 그러나 나선형으로 회전하며 나아간다. 현재와 비슷한 상황을 과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역사가 탄생과 성장, 그리고 쇠퇴와 붕괴의 단계를 거치기 때문이다.

오래전, 토인비는 아시아를 순방하는 길에 일본에서 한국을 들르지 않고 곧장 중국으로 갔다. 그때 그는 "한 왕좌가 오백 년, 천 년을 통치했던 나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런데 에드워드 카는 "역사는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남한산성'은 이괄의 난을 진압한 인조임금이 쌓은 성이다. 병자년 겨울, 인조임금은 청군을 피해 강화도로 파천하려 하나 진로가 막혀 남한산성으로 들어간다.

살기 위해 들어간 산성에는 동문, 남문, 서문, 북문 등 모두 네 개의 성문이 있으나 적에게 포위된 성에는 출구가 하나도 없다. 버려야만 다시 돌아갈

유일한 길이었다. 그리고 그 길은 적진을 통해야만 나갈 수 있었다. 적이 지켜보고 적의 포탄이 떨어지는 산성에서 고뇌에 고뇌를 거듭하던 인조임금은 강화도가 함락되고 난 뒤 그 출성을 결정한다.

칸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 치욕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인조임금은 출성을 반대하는 백관들을 향해 오히려 담담하게 말한다. "나는 살고자 한다. 그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말이다.

작가는 '하는 말'에서 신생의 길은 죽은 속으로 뻗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시대와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서 신생의 길은 그리 거창한 게 아닐 것이다. 러시 아워 때면 길게 정제된 자동차 행렬과 새벽까지도 환한 문을 닫은 가게들의 간판을 볼 때마다 그래서 나는 더 마음이 아프다. 자전거를 사도 자동차처럼 달릴 수 없는 불안한 길. 우리는 너무나 편리함에 깊이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잊지 말자.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현욱 199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

텐트안이 들썩! 마당극 한판 놀아보실라우

5·18 자유공원에 설치... 신명·독화성, 6~7일 '들불' 공연

광주에 텐트극장이 들어섰다. 5·18의 자유공원에 설치된 텐트극장은 가로 25m 세로 20m 높이 6m 규모로 250석을 갖추고 있다.

6~7일 오후 7시 텐트극장에서 공연되는 작품은 '들불'이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놀이극 신명과 일본 극단 '독화성 호응계획', '야전의 달'이 함께 무대에 올리는 작품이다. 대한민국 마당극 단체의 대표주자인 신명과 40년간 이어져온 일본 텐트극장의 결합이라는 의미에서 '마당, 텐트를 만나다'라는 부제가 붙었다.

신명의 박강의씨와 '독화성 호응계획'의 이계우씨 분배가 연출을 맡은 '들불'은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자본과 국가의 폭력, 환경 파괴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극은 회전무대와 지하, 객석 곳곳에서 튀어나오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춤과 노래로 풀어내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목숨을 담보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봉쇄된 팔레스타인의 주민, 5월 광주의 무명 용사들, 들불야학 사람들, 칠레 지하광산에 갇힌 광부, 일용직 일꾼, 이주 노동자들이 그 주인공들이

다. 대사는 한국어와 일본어가 뒤섞여 흘러나온다.

두 단체는 지난 2006년 '아시아인의 한마당'을 통해 처음 만난 후 양국을 오가며 각 극단의 대표작을 선보여왔다. 두 단체는 지난해 아예 공동작품을 만들어 보자고 의기투합했다. 쓰나미 때문에 공연이 1년 늦춰졌고 대신 이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작품의 중요한 모티브가 됐다.



텐트극장은 오는 11~12일 서울 광화문 열린마당에도 설치되며 6월에는 도쿄에서도 공연을 갖는다. 티켓가격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062-527-7292.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2011년 Wine Enthusiast 선정 최고의 미국 와이너리

라이프 스타일을 완성하는 와이너리
웬티의 오너 에릭 웬티와 함께하는 격조 높은 와인 디너에
와인 애호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2. 4. 12 (Thu) 19:30
Reception 19:00
사전 예약제

23rd Wine & Dine
WENTE
VINEYARDS
Wine Maker's Dinner

Since 1981 1등 맛있게 연출 선정
30년을 고집과 함께 지어온 광주의 대표 와인

골프의 女帝 애니카 소렌스탐의 와인인 애니카 59를 비롯한 7가지 와인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의 와인과 어울리는 최고의 만찬이 준비됩니다.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 예약문의 (062) 525-2111 |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보약, 흥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에금주 박주환

농성역, 광송간도로, 새우리병원, 한일파이프, 북고당 한약방